무용예술학연구제43집4호

무용전문인력 재교육에 관한 고찰

김 이 경*

Ⅰ. 서 론
Ⅱ. 문화예술 환경변화의 정책적 흐름과 예술교육
Ⅲ. 무용전문인력 재교육의 의의
Ⅳ. 무용전문인력 재교육을 위한 패러다임
Ⅴ. 결 론
참고문헌
Abstract

Ⅰ. 서 론

21세기에서의 “문화”라는 말은 우리 사회를 이해하는 중요한 키워드가 되고 있다. 국제화되고 다변화된 세계 속에서 국가 경쟁력의 하나로 문화가 대두 되면서 정책적으로나 교육적, 경제적 요소에서 다양한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를 위해 여러 가지 부분들 중에서 특히 정책적, 교육적, 경제적인 면을 살펴 볼 수 있겠다. 우선적으로, 정책적 측면에서의 변화를 살펴보면 20세기 이후 문화산업에서는 예술의 전문화와 세분화를 꾀하기 위한 방편으로 예술 활동의 지원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각국에서는 정책적인 차원에서 경쟁력 있는 예술가 양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들을 가속화하고 있다.

또한 문화예술의 교육적 측면에서는 현대 사회의 발달에 따르는 개인주의적인 경향과 인간성의 황폐화를 구제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문화예술교육의 필요성이 다시금 매우 중요한 키워드로 자리 잡고 있다. 근래에도 학교문제의 개선과 다문

* 한예종 · 창원대 강사, klk90@hanmail.net

www.kci.go.kr

화사회의 융합 등을 위해서도 예술교육이 부각되며 그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하고 있다. 이는 예술교육이 추구하는 인간구제와 전인적 인격함양으로 문화예술교육의 교육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무용예술계를 살펴보면, 무용분야 내에서의 직업창출이 활성화되어야 하며 그 분야에 있어서도 다양성이 요구되어진다. 이를 위해서는 무용학과 출신들이 사회에 진출할 때 안무, 무용수, 교육자, 이론가, 무용치료사 등과 같은 다양한 영역으로의 진출이 교육과정의 연계로서 이루어짐으로서 전문화 및 세분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가장 최근에 수립된 문화예술교육 정책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의 두 축은 정책기조가 살아 숨 쉬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커리큘럼 등)과 개발된 교과를 가장 잘 전달할 수 있는 강사진을 포함한 매개자 층, 즉 교육과정과 전문 인력의 층을 두텁게 형성하는 일이다. 또한, 무용수의 직업 전환이나 예술가의 복지측면의 사업은 전문무용수지원센터에서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무용 전문인력의 꾸준한 재교육과 함께 다양한 무용전문가로서의 방향 및 인력양성이 꾸준히 교육되고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전문인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과 재교육에 그 주된 문제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본문 3장으로 구성되어 문화예술 환경변화의 정책적 흐름과 예술교육, 예술가 재교육의 의의, 무용전문인력 재교육을 위한 패러다임구축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예술의 특성상 예술가가 교육자인 직업적 특성에 따라서 고등교육을 받은 무용전문가들이 이 시대의 사회 변화에 부응하여 무용 전문가로 거듭나기 위한 재교육[1]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대적 요청에 따라 문

1) 재교육의 의미는 정규교과과정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교육내용을 배우는 것, 또는 시대별 사회문화의 변화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교육내용을 배우는 것, 새로운 직업을 찾기 위한 교육 등으로 나누어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재교육의 의미는 무용교육이 이루어지는 정규교과과정에서 배우지 못한 교육내용을 배운다는 의미와 시대별 사회문화의 변화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교육내용을 배운다는 의미에서 사용되어질 것이다.

www.kci.go.kr

화정책변화에 따른 예술의 흐름변화 특성을 살펴보고 예술가 재교육 개념과 의의 및 범주를 바탕으로 무용 전문 인력을 양성함에 있어서 나아갈 방향의 제시와 무용전문 인력의 직업창출을 효율적으로 유도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1. 문화예술의 환경변화와 예술가 재교육의 이론과 실제는 무엇인가?

가. 예술가의 재교육은 새로운 지식과 제반되는 여러 가지 기술이 급변하게 발전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추어 예술가의 계속적인 재교육이 요청된다.

나. 예술가의 재교육은 전문인 양성의 측면 뿐 아니라 예술가들의 새로운 직업창출의 유도 즉, 직업의 확장 차원에서도 다양하게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화예술 환경 변화에 따른 예술가 재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무용예술가 재교육 프로그램 구축과 무용전문 인력의 사회적응력 배양 및 무용전문 인력의 직업 창출이 다각적으로 이루어 져야 한다는 데에 본 연구의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차후 연구로 좀 더 다양한 무용 전문 인력의 전문화와 세분화를 위한 국내 대학의 교육과정분석 및 운영 실태 조사와 함께 해외의 사례 및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을 남겨 놓으며 본 논문에서는 문화 환경변화와 재교육의 이론적 연구를 통한 고찰을 하였다.

Ⅱ. 문화예술 환경변화의 정책적 흐름과 예술교육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에 각각의 시대별로 다른 형식으로의 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변화 요소는 예술 자체의 문제의식과 더불어 예술 주변의 환경이라 할 수 있다. 예술자체의 문제의식이라는 측면은 예술가의 상상력을 발현시키는 창작 욕구일 것이며, 예술주변의 환경은 사회, 문화, 역사관 등과 같이 예술가가 몸담고 있는 한 시대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수반하고 있는 것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다. 따라서 예술은 그 시대의 가치관과 시대적인 요구에 의해서 창작 활동에 영향을 받

www.kci.go.kr

게 되어 있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한국의 문화예술 환경 변화에 나타난 문화정책 기조와 예술의 연관성, 예술교육과 예술의 연관성 등과 같은 측면을 살펴보았다.

1.문화정책변화에 나타난 예술특징

문화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예술계의 흐름을 살펴보기 위해 한국의 역대 정권의 문화정책의 기조는 〈표 1〉에서 나타나듯이 정책의 내용에 있어서 다양한 특징을 내포하고 있다.

〈표 1〉의 한국 문화정책의 흐름을 보면 먼저 1970년대 제 3공화국과 제 4공화국의 경우는 국가의 기틀을 확립하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민족문화를 새롭게 정립

〈표 1〉 한국 문화정책의 시대적 흐름[2)]

시기	이념	특징	비고
제 3공화국	주체성	–민족문화의 창달	문예중흥 5개년 계획수립
제 4공화국	주체성	–자주적 민족문화창달, 민족주체성 확립 –영화 및 출판 진흥 등 대중문화에 중점	문화예술진흥원 설립문예 진흥기금모금
재 5공화국	문화적 민주주의	–대규모 문화시설의 건립 –지방 문화원의 육성과 진흥	예술의 전당 건립
제 6공화국	문화복지와 참여	–국제 문화교류의 양적 확대와 다변화 –문화부분 재정확충 –생활문화정책에 초점	문화 복지 중시
문민정부	자율성 다양성	–우리문화의 세계화와 문화산업의 강조 –자율성과 다양성의 토대위에 창작풍토 조성	문화산업 강조
국민정부	형평성 경제성	–삶의 질 향상이란 개념이 도입 –문화산업의 육성 강조	삶의 질
참여정부	참여 자율 분권	–문화행정의 개혁 –지방분권화 및 민간 자유체계화 추진	문화관광부
2008년~ 2012년	대한민국의 선진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중장기 전략	능동적 복지

2) 문화관광부(2002), 『문화정책백서』, 문화관광부, p. 45.

www.kci.go.kr

하는 경향성을 가지고 "문예중흥 5개년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제 5공화국과 제 6공화국의 경우는 1960년대 프랑스의 문화정책의 일환인 문화적인 민주주의 또는 문화의 민주화로 번역될 수 있는 Democratizing Culture[3] 기조 하에서 문화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 민주주의는 "다원성과 다양성에 기초를 두고 사회 각 분야들이 예술적으로 상징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을 갖는 것을 의미한다."[4] 즉,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공간 육성과 생활 속에 문화의 활성화, 국제문화교류의 확대 등을 통해 문화 복지를 이루고자 했던 정책 기조라 할 수 있겠다.

또한, 문민정부의 문화정책 기조는 문화산업이라는 개념의 등장인데 한국문화의 세계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후 등장하는 국민정부와 참여 정부 경우는 문화 민주주의(Cultural democracy)의 기조를 받아들여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2. 문화정책에서의 예술교육

최근의 문화정책 중 가장 주목받고 있는 주제는 단연 '문화교육'이라 할 수 있겠다. 문화예술교육은 그 특성상 교육대상과 목적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창작자를 위한 교육과 매개자를 위한 교육, 향수자를 위한 교육으로 구분할 수 있다.[5] 이에 교육현장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예술대학을 중심으로 예술교육과 관련한 현황에서, 2003년도에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교에서의 예술관련학과 배출 인력은 전체 1,800개의 학과에서 총 72,670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

3) Democratizing Culture는 1960년대 프랑스 정권을 잡은 좌파 지식인들이 주장했던 문화정책의 일환으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토대로 두고 있는 문화정책의 기조이다. 이 정책은 문화의 엘리트주의가 저변에 깔려 있는 개념으로 문화라는 것이 지금까지 상류층의 전유물로 여겨져 왔던 것이다. 이러한 고급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대중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바로 문화의 엘리트주의를 담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4) 구광모(2001), 『문화예술정책과 예술진흥』, 중앙대학교 출판부, p. 74.

5) 김세훈(2004),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방안』(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p. 63.

www.kci.go.kr

타났다.[6] 즉 국내 대학에서의 예술 관련 학과 설치 비율 및 졸업생 수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만큼 비대한 수준이나 양적 풍요와는 달리 현장에서의 인력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잠재적인 초급예술인의 배출에만 치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예술실기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하여 실기에 초점을 둔 과정과 내용이 중점적으로 교육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의 문화예술교육 현장에서는 매개의 역할을 하는 문화예술 기획 · 경영 인력 양성시스템 미비가 교육환경을 저해하고 있다. 즉 예술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예술경영인, 예술 공간 운영인, 무대기술자 들을 위한 교육환경은 커리큘럼이 체계화되어 있지 못하고 현장과의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한 문화예술 향유자 교육에 대한 철학과 방향성 및 정책 부재가 문화예술교육 환경을 저해시키는 요인이 된다. 즉 전문예술가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한 기능중심 문화예술교육으로 인해 음악이나 미술 실기 교육이 곧 예술교육이라는 협소한 사고에 고착시키고 그 결과 문화 감수성과 적극적인 향유 능력을 키워내지 못한 채 예술은 이해하기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교육환경에 기인하여 예술 공급에 비해 수요가 뒷받침되지 않는 불균형한 예술시장이 형성되어 있어, 관객이 없이 각 예술장르 내에서 공급자 중심의 반복적인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기형적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문화예술 교육현장을 향수자 중심의 교육과, 전문 인력 중심의 교육으로 나누어 보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교육환경에 대해 문화관광부 정책 실무자인 용호성(2004)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하였다.[7]

가. 향수자 교육의 현장

1) 향수자를 위한 문화예술 교육의 개념과 방향성 등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가 미흡했다. 90년대 이후 문화의 중요성이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지만, 공급

6) 앞의 책, p. 73.
7) 용호성(2004), 『문화예술 교육정책의 현황과 전망』, 한국공연예술매니지먼트협회, "공연예술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운영활성화", p. 1.

www.kci.go.kr

자 중심의 문화 역량만 강조되고 개개인이 일상적으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삶 속에서의' 문화 역량 강화는 간과되는 경향이 있다. 또한 경제적 측면에서 문화의 중요성만 강조되고, 교육 등 사회 각 영역에서 문화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미흡하다. 결과적으로 문화예술에 대한 정책이 부재한 실정이다.

2) 문화기반시설 등의 사회 문화예술교육 역량이 미흡하다. 왜냐하면, 문화기반 시설 운영 · 기획 지원보다 문화기반시설 확충에 치중하고, 문화기반 시설 내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이 크게 부족하여 그 결과 기반시설 거점의 지역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에 많은 애로 사항이 있으며, 기존 교육제도 밖 청소년 대상의 사회문화예술교육 정책의 부재 때문이다. 기존 교육제도에서 수용하지 못하고 있는 이른바 탈학교 청소년을 위한 체계적인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이 미흡한 실정이며, 문화예술 관련 대안교육 시스템의 구축을 포함하여 이들의 문화적 여건을 배려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실정이다.

3) 입시 교육의 고착화로 학교 내 문화예술교육 비중이 축소되는 경향이 있다. 즉 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철학과 방향성, 교육과정 등에 대한 공공 토론 및 정책 비전 제시가 부재하고 있으며, 입시위주의 교육적 '현실'로 인해 자발적으로 문화예술교육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현 7차 교육과정에서 문화예술 분야 수업 시간은 정규교과가 초등학교 64시간, 중학교 학년별 34~68시간 고등학교 1학년 주당 1시간(2 · 3학년은 선택 교과 화)로 책정되어 있어 평균 주당 1시간의 예술교육을 통해 정상적인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곤란하며, 인문계 고등학교의 경우 주 1시간의 문화예술 분야 교과수업 시간조차 입시 위주의 교과목 시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문화예술분야 교사 전문화 과정이 미흡하고 문화예술인과 학교의 연계성이 부족하다. 예를 들면, 교사들에 대한 문화예술 분야 재교육 프로그램이 미흡하여 개별적인 차원의 노력 외에는 체계적으로 새로운 지식이나 교과방법론을 배워나갈 기회가 차단되어 있는 상태이며, 장르별 예술가들과 학교 현장과의 유기적 연계가 결여되어 학생들이 현장을 통한 생생

www.kci.go.kr

한 예술적 체험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마지막으로 문화예술교육 시설 및 기자재의 부족이 학교 내 문화예술교육의 부재를 유발시켰다.

나. 전문 인력 교육 현장

전문 인력 교육은 매개자 교육[8]과 창작자 교육[9]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매개자 교육에 있어서 교육 현장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민간 영역에서는 현장 연계성이 높은 교육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예를 들면, 민예총 문예아카데미가 문화예술운동 차원에서 89년부터 전문 교육과정을 개설, 현재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또한 98년 다움 아카데미의 설립으로 민간 영역에서의 교육이 본격화되었고, 2000년을 기점으로 한겨레 문화센터, 3개 방송 아카데미에서 문화예술경영 관련 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교 제도권 교육에 비해 교과 구성이나 강사진 구성에 있어 현장 연계성이 높고 실무교육이 많은 것이 특징이나, 대학원 학제가 늘어가면서 민간부분에서의 예술경영 교육은 약화되어지고 있는 상황이다.[10]

2) 민간 영역에서 개설되었던 교육과정이 대학교육 내로 흡수되면서 대학원 과정이 급속히 증가하였다. 1984년 중앙대학교 사회개발 대학원에 문화예술학과가 처음 개설된 이래 04년에 31개 대학원에서 전공과정을 개설하여 운영되었다. 주로 특수 대학원으로 개설되어 있고 예술경영과 연관되어 있는 다양한 전공으로 세분화되고 있으나, 단기간에 많은 대학원들이 생기면서 전문역량을 갖춘 교 · 강사진의 부족현상이 발생되었고 이로 인해 교육과정 이수자의 전문성에 대한 신뢰도 하락을 초래하였다. 또한 예술경영 교육은 주로 실무교육에 무게를 두고 있어 창조적 기획능력에 대한 교육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

8) 매개자 교육이란 예술과 예술, 예술과 사회, 예술과 향수자, 예술과 정부기관, 예술과 각 나라 등 연계시켜주는 기능을 하는 전문 인력을 일컫는다.

9) 전문 예술가 교육을 말한다. 주로 대학교육과 특수목적고 교육, 예술학교 교육이 여기에 포함된다.

10) 김세훈(2004), p. 97.

www.kci.go.kr

3) 공공영역에서는 국가 문화행정인력의 재교육을 목적으로 하여 공무원 및 관련 인력 대상의 단기 연수를 시행하고 있다. 1985년 국공립 기관의 문화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시작되어 1989년부터 정례적인 문화행정연수로 운영되기 시작했으나 교육목적에 걸 맞는 체계적 커리큘럼이 미흡하고, 지나치게 단기연수 중심이어서 내실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4) 전문 인력이 양적으로 팽창하고 있으나 수요와 공급 간 불일치로 실업자 군을 양산하고 있다. 한국문화정책연구원(2004)에 따르면 '03~'04년경부터 해마다 대학원 교육을 받은 700~800명의 예술경영 분야의 인력이 배출되고 있지만 졸업 후 일자리를 찾지 못하거나 열악한 근무 조건에서 일을 하고 있는 형편이다.[11] 반면 2011년까지 문화 공간 확충 계획을 기준으로 향후 4700명의 문화행정 인력과 1400명의 무대기술 전문 인력 수요가 예상되며, 이에 따라 현재 운영되고 있는 문화예술경영 관련 대학원이 약 20여 년 간 졸업생을 배출해야 필요 인력을 충족시킬 수 있다. 이러한 수요와 공급간 불일치는 교육을 통한 공급을 사회적 수요로 전화시키기 위한 체계적 정책과 제도가 마련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창작에 대한 교육 현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가) 체계적인 창의적 영재교육이 부족하다. 즉, 국가적인 단위에서 보다 체계적으로 연령별, 분야별, 영재를 발굴하여 기존의 교육시스템에서 탈피한 차별적인 교육이 부재하고 있으며, 학력에 따라 수직적으로 연계 운영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통합 예술영재 육성 프로그램 및 종합계획이 부재하고 있다.

나) 국내 대학의 예술관련 학과 설치 비율 및 졸업생 수가 비대하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03년도 기준으로 4년제 대학 및 전문대학교에서의 배출 인력은 전체1,800개의 학과에서 총 72,670명으로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아

11) 앞의 책, p. 98.

www.kci.go.kr

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초급예술인 배출이 높다. 초급예술인 배출은 활발한 반면 이들이 예술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매개하는 역할을 하는 예술경영, 기획, 마케팅, 예술단체 및 공간운영, 무대기술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커리큘럼이 체계화되어 있지 못하며 현장과의 연계가 부족한 형편이다. 따라서 예술대학 졸업생들이 졸업 후 대부분 개인레슨이나 학원 운영 등 교육관련 직업에 종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술 분야별 교수법, 예술을 활용한 다양한 형태의 통합교육, 학원 경영 문제 등 현실적으로 필요한 과목에 대한 교육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다양한 예술응용분야에 대한 체계적 교육시스템이 미비하게 드러나고 있다. 2010년 전은자, 김현정의 "무용프로그램이 다문화가족의 문화적응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에서 다문화 무용교육프로그램의 진행시에 전문 인력의 제한으로 인해 현실적으로 수용자들의 다양한 요구 수용이 매우어려움을 문제점으로 발표하고 있다.[12)]

Ⅲ. 무용전문인력 재교육의 의의

오늘날 현대사회는 기술문명의 시대라고 불리 울 만큼 발달하여 다원화, 전문화되고 있으며 문화적, 역사적 교류가 활발하고 광범위하다. 인간은 끊임없이 발달, 변화하며 지속적인 욕구충족을 바라는 존재이길 알기에 사회 각 기관에서는 이와 부합되는 새로운 전문지식과 기술을 습득하게 하여 효율적인 관리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재교육(계속교육: Continuing Education)을 실시하고 있다.

재교육 용어의 어원은 살펴보면 프랑스어인 L'education Pernmente에서 연유된 영어의 Permanent Education 또는 Continuing Education이라는 용어에서 유래된 것[13)]이며 일반적으로는 이미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다시

12) 전은자, 김현정(2010), 무용프로그램이 다문화가족의 문화적응에 미치는 영향, 『무용예술학연구』, 31, p. 131.

www.kci.go.kr

필요한 교육을 베푸는 일이라고 정의[14]하고 있다. 즉 이미 지니고 있는 지식 또는 기술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어떤 기술이나 학문에 대해 다시금 행하는 교육이다.

재교육과 유사한 개념으로는 교육훈련(Education and Training)과 연수교육(In-Service Training)이 있다. 이것들에 관한 개념상 특징은 다음과 같이 구별해 볼 수 있다.

가. 계속교육은 정규교육이나 직업을 얻기 위한 준비 교육이 아닌 일정한 전문분야에서 활동 중 새로운 영역으로서의 발전과 확장을 위하여 개인 각자가 선택한 학문의 개발을 목적으로 한 기본적인 활동을 의미한다.

나. 교육훈련은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피교육자의 일반능력을 개발하고 예술 활동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연마하여 발전과 변화를 촉진하는 것을 말한다.

다. 연수교육은 기존 연수원, 공공기관 , 교육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비교적 단기간의 사회 교육의 한 종류로 일정수준에 오른 자에게 자격을 인증하여 전문적 예술인을 위한 교육을 의미한다.

비록 이들 세 가지의 교육 형태는 개념상 또는 기능상의 차이는 있으나 예술가에 대한 재교육은 이 세 개념과 형태를 포괄적으로 수행하는 교육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예술은 미를 창조하는 의지와 감정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하나의 예술작품은 우리의 감각이나 상상력을 통해 창조된 하나의 표현적 형식이며 그것을 표현하는 주체는 인간의 감정이다. 또한 예술작품이란 감정의 삶과 동일한 유형, 표현들을 소유하는 창조된 이미지의 세계이다.

그러나 이 이미지는 비록 창조된 환영 순수한 외양이긴 해도 객관적인 세계로 존재한다. 이 이미지는 그 형식이 바로 감정의 본질을 표현하기 때문에 감정으로 충전된 것처럼 생각한다. 따라서 무용은 주관적 삶의 객관화이며, 다른 예술작품 역시 그렇다. 따라서 예술이라는 사회적인 활동은 인간 삶의 영역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회에 있어서 예술의 기능은 교육적인 기능을 비롯하여

13) 김승환(1983),『평생교육입문』(서울: 정민사), p. 39.
14) 이승희(2002),『국어대사전』, 민정서관.

www.kci.go.kr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사회비판의 역할까지도 수행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예술교육은 다른 제반 교육과 마찬가지로 사회가 필요로 하는 완성된 인간을 양성하는 것을 근본 목적으로 하며, 여기에 더해 예술의 영역만이 가지고 있는 독자적인 가치, 즉 미적 가치를 인식하게 하고 창조하게 한다는 독특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미적 가치를 인식하고 창조해내는 것이 예술이라 할 때, 예술교육이란 제반교육이 추구하는 인간교육이라는 이상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인간교육으로서의 예술교육 중 무용교육에 대한 중요성은 이미 고대 플라톤(Platon)에게서부터 유래하고 있는데, H. Doubler(1957)는 "가장 이상적으로 발달된 인간이란 자신의 모든 능력을 똑같이 중시하고 발달 시켜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또한 정서적으로 균형 잡힌 통합된 인간을 말한다. 이런 특성 때문에 예술이 교육의 이상에 가장 적합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인간의 온갖 복잡한 성직들은 예술표현을 통해 통합되기 때문이다. 지성에 의해 통제되고 조정되어 신체적으로 실행되었을 때의 추진력은 인간의 모든 에너지를 융합 한다"라고 주장하며 무용교육을 '자아의 통합된 감수성과 인생의 건전한 철학을 위하여 공현하게 되는 자유와 문명의 힘'이라고 강조함으로써 무용의 교육적 가치를 논하였다.[15]

무용은 신체의 움직임을 통하여 인간의 사상, 감정인 희 · 노 · 애 · 락을 인간의 신체의 표현을 통하여 예술 작품으로 승화시키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흔히 무용교육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된다. 하나는 무용을 통한 인간형성을 위한교육, 다른 하나는 무용을 위한 혹은 무용의 교육을 일컫는다.

전자는 무용교육의 수단으로 하여 바람직한 인간으로 고용하고자 하는 행위이다. 즉 일반 초 · 중 · 고등학교 체육교과에서 다루어지는 교양교육으로서의 의미도 함께 내포하고 있다. 후자는 무용예술을 전문으로 하는 무용예술가를 기르기

15) 김화숙(1986), 『무용교육이란 무엇인가』, 서울: 한학문화사.

www.kci.go.kr

위한 교육이다. 따라서 무용예술을 교육목표로 하는 교육은 무용의 전문교육에 해당된다.

따라서 무용교육의 이중적인 측면을 통해 전문적인 예술교육은 한 인간의 예술적 소질과 창조성을 계발하고 민족문화를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예술인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기르는데 목적이 있으며, 무용교육을 수단으로 교양교육의 의미를 가진 무용교육의 경우는 예술교육을 통하여 바람직한 인격에 바탕을 둔 전인적인 인간과 창의력 있는 인간을 양성한다는 것이 목적이라 할 수 있다.

전문 예술가의 예술창조에 있어서 영감이란 무(無)에서 자연히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는 노력과 수련을 통해 나타난다. 그러므로 무용교육에서는 바로 멋진 영감이 몸에 붙게 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또한 이와 같은 훈련은 가능한 것이며 무용에서는 즉흥을 통하여 이러한 훈련에 도움을 주고 있다. 예술의 창조에서는 자유와 자발성의 개념에 근거하여야 하며 예술교육은 그 점에서 가장 창조적인 작업이라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전문 예술가의 배출에 있어서 예능교육과 진정한 의미의 예술교육을 구분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즉, 예능교육이라 함은 기술을 배우는 단계로 창의력 있는 활동을 익히는 훈련이 아닌 신체 움직임의 기능을 배우는 교육을 말하며, 진정한 의미의 예술교육은 예능교육 수행과 더불어 예술가의 창의력을 배양시킬 수 있는 교육을 의미한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예술교육이라 함은 예술가의 교육뿐만 아니라, 예술을 통해 행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을 의미한다.

이 점에서 예술 전문가의 육성을 위한 예술교육의 새로운 개념 정의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즉, 예술전문가의 육성을 위한 예술교육이라 함은 창의력 있는 예술가의 배출과, 그 외에 예술을 통해 수행할 수 있는 교육, 경영, 치료, 사회복지 등과 같은 다양한 영역의 전문적인 교육을 수행하는 교육이라 새롭게 정의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문가의 재교육은 문화예술분야에서도 새로운 지식과 제반되는 여러 가지 기술을 요청하고 있고 현재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들도 자신 스스로 재교육을 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객들의 지적 문화수준의 향상은 보다 전문화된 고품

www.kci.go.kr

질의 공연을 기획 · 제작하여 수용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예술인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예술가의 재교육 차원은 창의력 있는 예술가의 재교육뿐만 아니라 예술과 관련된 새로운 직업의 창출 즉 직업의 확장의 차원에서도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대학에서 시행하고 있는 고등 예술교육을 받은 인력들이 실제 예술가로 진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새로운 직업을 찾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술과 관련된 다양한 영역의 전문적인 재교육을 통해 새로운 직업 창출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예술가를 위한 재교육은 중요하며 이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1. 문화예술의 환경변화에 따른 예술가 재교육의 범주 설정

문화예술의 환경은 예술가들의 사회활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재교육은 정규교과과정에서 미처 교육받지 못한 사항들을 교육시키는 방법으로 시대적인 흐름에 역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예술 전문가를 육성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1세기 문화예술의 환경은 다양성을 담보로 한 참여의 예술정책을 주장하기에 이르고 있으며, 기술매체의 발달과 문화예술교육의 중요성 부각 등을 통해 예술가들의 창작활동과 예술가들의 사회활동에도 변화의 양상을 맞이하게 되었다. 이에 예술가들의 재교육의 범주를 설정하면 〈표 2〉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

〈표 2〉에서 나타나듯이 예술가를 위한 재교육의 범주는 창작활성화와 예술을

〈표 2〉 예술가 재교육의 범주설정

창작활성화를 위한 재교육	예술을 통한 전문직 창출을 위한 재교육
무용작품 창작 작업은 테크닉의 변화와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다양한 창작방법들을 양산시키고 있다. 이에 보다 창의력 있는 창작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안무가들의 재교육을 실시하는데 목적으로 두고 있으며, 이러한 재교육의 영역은 예술가 양성을 위한 교육시스템으로 운영되어져야 한다.	창작활성화를 위한 재교육이 예술가 양성의 교육이라면 전문직 창출을 위한 재교육의 영역은 시대적 · 사회적 · 문화적 요구에 의해 무용예술을 활용하여 새로운 직업을 찾는데 목적이 있다. 예를 들면, 무용교육가, 무용치료사, 무용복지사 등과 같은 영역의 개발을 주목적으로 해야만 한다.

www.kci.go.kr

통한 전문직 창출이라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고등교육의 교과과정을 보면, 음악, 미술, 무용 등과 같이 순수예술의 학과 안에서 통합교육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예술창작, 예술실기, 예술교육, 예술치료 등과 같은 영역으로 세분화되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예술에 관련된 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의 취업이 다양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예술가들의 재교육을 통해 창작활동의 활성화를 유도해야만 할뿐만 아니라, 다양한 직업 창출을 유도해야만 한다는 과제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Ⅳ. 무용전문인력 재교육을 위한 패러다임

문화예술로서의 무용예술의 전문성 확보와 실현은 변화하는 문화예술 세계의 환경적 요인과 무용교육의 실용적 교육과정 운용 및 재교육의 구축체계에 크게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무용예술가 재교육 프로그램이 담고 있는 기본적 내용으로서의 방향과 지표에 수반되는 패러다임의 구축은 무용을 포함한 문화예술의 환경요인과 여건들을 반영해야만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변화하는 환경 속에서 우리시대의 무용 전문 인력의 재교육 과정을 위하여 국내의 전문무용수지원센터 프로그램과 프랑스의 국립무용센터(CNDC) 프로그램을 살펴보고 보다 다양하고 지속적인 전문예술가의 재교육을 위한 프로그램방향과 새로운 직업창출을 위한 효율적 방안을 위한 패러다임을 설정해보았다.

1.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반영

2004년 상반기부터는 실제 문화예술정책 세미나와 문화관광부의 지원을 통해 새로운 정책기조들이 적극적으로 발표되고 있다. 이렇듯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논의들이 이 시대의 화두로 등장하게 된 주요한 배경은 국제화 및 세계화되는 지구

www.kci.go.kr

촌 의사소통의 맥락에서 국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문화적 역량이 강력하게 요구되어지는 사회현상의 자발적 반영이라고 말 할 수 있겠다. 또한 이 같은 상황에 대비한 급격한 사회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 적 차원의 인력 개발에 주력하는 정책의 반영은 필연적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다양화되어진 인간적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어 개인들의 감수성과 창의성 개발이 문화적 능력 배양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은 시대정신을 반영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관심의 집중은 결국 2005년 '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설립을 가져왔으며, 이와 함께 다양한 문화비전의 제시와 반향을 불러 일으켰다. 2003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종합계획'은 〈지역사회 문화기반시설과 학교 간 연계체제 구축을 통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추진계획〉의 추진경과와 향후 정책방향 및 2004년도 시범사업 추진계획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위 정책은 개개인의 문화예술 향유 수준제고 및 취향과 감수성 개발, 지식문화사회에 적합한 창의적 인력 육성을 추진 목표로 하여 다음과 같은 추진 방향으로 설정되었다.

첫째, 문화예술에 대한 올바른 수용 능력의 함양: 창작자 양성과 더불어 문화적 삶을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여 향수자(享受子)교육의 강화로 문화 수용능력 함양과 어린 시절부터 문화예술에 대한 접촉 기회 확대에 역점을 둔다.

둘째, 지역문화기반 시설과 학교 교육간 연계 강화: 지역별로 건립되어 있는 문화기반시설 및 문화예술단체와 각 급 학교 간 연계성을 높이는 협력프로그램 확대와 현장교육 강화로 문화예술에 대한 실질적인 이해와 친밀감을 증진한다.

셋째, 중앙정부, 지자체, 문화예술계 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강화: 문화관광부와 교육 인적자원부 간 협력 등 범정부적 협력체제 구축과 자치단체, 교육청, 학교, 문화시설 등 관련 주제간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넷째, 문화예술 교육 전문 인력[16]의 체계적 육성지원: 학교와 문화예술현장 간

16) 문화예술 전문 인력은 정책적인 차원에서 보면 대학이상의 학력을 소지하고, 한 분야에서 professional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사회 인력을 일컫는 말로, 현재 무용분야의 전문 인력의 안무가, 무용수, 교육자 기획자, 무용이론가 등에 해당하는 용어라 할 수 있다.

www.kci.go.kr

효율적인 연계를 위한 체계적 육성 방안 강구와 각 급 학교의 문화예술 관련 교사들의 능력제고 및 역할 강화를 위한 재교육 및 지원프로그램을 개발한다.

다섯째, 초 · 중 · 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 대상 사업 중점 추진: 중 · 장년 및 노년층 대상 프로그램은 문화기반시설을 중심으로 한 사회교육프로그램으로 병행 추진한다.

이상과 같은 다섯 가지 추진 방향의 설정을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 사업은 '문화예술교육 대국민 인식제고', '문화예술교육 연구사업 추진', '문화예술교육 지원체계 및 지역단위 협력체계 구축', '문화예술교육시범프로젝트추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재원확충'의 주제로 추진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련된 정책은 이후 다양한 각도에서 정책 수립을 거듭하고 있다.

2. 창작활성화의 유도

교육은 모든 분야의 초석이다. 창의성이 뛰어난 경쟁력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전문분야에 대한 교육의 변화가 절실하다.

현재의 한국 대학에서의 무용교육의 문제점은 시작부터 다각도로 문제점을 누적해왔다고 할 수 있겠다. 첫째, 39개의 대학에 전문 무용교육을 수행하고 사회에 진출하는 전문 인력의 수는 늘고 있지만, 대학 교육의 전문성과 다양성의 결여에 의해 창의력 있는 예술가 배출에는 실패했다. 둘째, 1970년 이후 문화예술진흥정책에 힘입어 문예 진흥기금의 수혜가 늘어난 반면에 작품의 질적 향상은 여전히 미흡하고, 공연제작에 투입되는 자본의 증가로 인해 진흥기금만으로는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수행할 수 없다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무용예술의 전문 인력에 대한 개념 정립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무용수 교육과 안무가 교육의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1) 프랑스의 국립현대무용센터의 구성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98년 11월 창립한 CNDC(국립현대무용센터 Centre national de danse contemporaine) 는 아래와 같이 각각의 임무들을 수행하는 조직들로 구성되어 있다.

www.kci.go.kr

○ '무용컴퍼니와 공연예술의 집(la Maison des compagnies et des spectacles)': 작품 창작 및 보급 확산 지원

○ '무용 교육 및 연구원(l'Institut de pédagogie et de recherche chorégraphiques)': 안무가 및 무용 교사들에 대한 교육

○ '직업부서(le Département des métiers)': 무용 전문인들의 진로에 대한 정보와 서비스 제공

○ '무용 문화 발전 부서(le Département du développement de la culture chorégraphique)': 특별 미디어떼크의 운영을 통한 무용 문화의 발전, 각종 심포지엄 및 세미나 조직 및 자료집 발간 등의 활동 정책, 연구 지원[17]

2) 국내 전문무용수 지원센터의 구성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7년 재단법인으로 설립된 전문무용수지원센터는 무용수의 직업전환사업과 상해지원 프로그램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 직업개발: 무용재활 트레이너 양성, 직업전환

○ 댄서스 잡 마켓: 무용수와 무용단을 연계, 무용예술인들이 역량 있는 무용단과 함께 작업할 기회 제공

○ 상해 재활 및 예방: 무용 예술인 상해 및 재활지원[18]

국내의 전문무용수센터의 사업구성내용을 들여다 볼 때에 전문무용수의 직업전환, 상해,복지적인 측면에 초점이 맞추어져있으므로 무용예술인의 활동수명을 연장하고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려 노력하는 흔적들을 엿볼 수 있다. 그러나 무용수와 안무가 교육의 좀 더 심화된 프로그램의 개설과 지속적인 교육기회의 제공을 통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새로운 직업으로의 창출이 필요하다.

3. 테크놀로지 발전에 따른 수용과 활용

디지털 시대의 문화예술(1999)이라는 저서에서 문화를 위한 기술, 즉 문화예술

17) http://www.cndc.fr.

18) http://www.dcdcenter.or.kr.

www.kci.go.kr

산업의 발전을 위한 디지털 기술을 지칭하는 용어로 “Culture Technology”[19] 라는 용어를 제시하고 있다. 이것의 4가지 접근성[20]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가. 실용적인 접근– 문화와 예술, 즉 문화예술 산업을 위한 디지털 기술을 개발한다.

나. 이론적인 접근– 문화와 예술을 계산학적 이론과 디지털 기술로서 모델링 한다.

다. 공학적인 접근– 이 공학 기술 개발에 문화와 예술을 활용한다.

라. 인문. 사회학적 접근– 사이버 스페이스 내에서의 인문. 사회학적 이슈를 다룬다.

이러한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현대 예술 환경에 있어서 테크놀로지의 영향에 따른 무용예술가의 입장 변화를 도출하면 다음과 같다.

1) 무용예술 창작에 있어서 다양한 테크놀로지의 사용으로 인해 표현 언어의 확장을 꾀할 수 있게 되었다. 즉, 20세기 후반 창작 작품에서의 영상기술의 도입은 몸짓 언어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요소들에 대한 설명의 효과를 가져와 감상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의 확장을 유도했다.

2) 컴퓨터 그래픽을 활용한 안무법 등의 개발로 인해 무용예술가의 작업에 있어서 컴퓨터라는 테크놀로지의 기술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시대의 테크놀로지는 무용예술의 콘텐츠 구축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무용예술이 가지고 있는 현장예술로서의 특성 상 보존의 어려움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보존과 기록의 차원에서 무용예술의 콘텐츠 구축은 현재의 무용예술의 가치를 후대에게 까지 전할 수 있는 기술의 발전을 가져왔다.

이상과 같이 테크놀로지의 발달은 예술 창작 환경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다. 이에 무용예술가에게는 테크놀로지에 지식을 습득해야만 하는 과제가 남게 된다. 즉

19) 원광연(1999),『디지털 문화예술의 발전에 대하여』(문학과 지성사), p. 163.
20) 앞의 책, p. 165.

www.kci.go.kr

테크놀로지의 지식이 없다면 창작방식의 다양화를 유도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디지털 시대의 무용예술 수용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이 용이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한다면, 성격상 문화예술종사자들과 이공계 과학기술자들과의 긴밀한 공동연구와 공동 작업이 필요할 것이며, 무용 전문 인력 양성에 있어서도 다양한 테크놀로지의 활용법과 이에 관한 재교육들이 재교육 차원에서 반드시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다.

4. 무용예술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마케팅 측면

가. 무용가라는 인력양성의 문제점을 암시하고 있는 홍승찬(2000)의 '공연예술 마케팅 전략'에 따른다면, 경영적인 측면에서 공연장이나 공연단체의 운영 목표라면 양질의 공연물을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관객유치를 극대화하고 아울러 이에 필요한 재원을 충분히 확보하는데 있으며,[21] 이는 공연장 관객의 개발을 위해 인력 양성의 문제와 연계됨을 지적하고 있다.

나. 무용학 이론의 측면에서 무용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면, 39개의 대학에서 무용(학)과를 개설하여 고등무용교육을 시행하고 있는데 반해, 무용학의 심도 있는 연구는 여전히 다른 예술분야의 연구에 비해 다양성 확보에 실패하고 있다. 이에 21세기 한국의 무용계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위의 두 가지 측면의 문제점을 해결해야하는 시점에 다다랐다. 해결의 실마리는 무용교육의 차원에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전문 무용 인력의 배출을 위한 재교육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국가와 사회가 요구하는 전문 인력으로 거듭날 수 있으며, 재교육을 통한 무용 전문 인력의 배출은 더 나아가 무용예술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21) 홍승찬(2000), 공연예술의 마케팅전략II, 『음악연구』 7, p. 143.

www.kci.go.kr

V. 결 론

지난 수 십 년 동안 한국의 문화예술은 문화예술진흥정책에 힘입어 지속적인 발전과 변화를 이루어 왔다. 현재, 국제화 및 특성화된 문화예술 세계에서는 시대별 및 국가별 문화예술 환경변화에 따른 예술의 발현형태들이 급속한 변화를 맞고 있다. 따라서 문화예술의 각 영역들은 새로움을 창작하는 예술가들에게 언제나 영향을 주기 마련이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에 있어서도 21세기 문화예술의 환경은 예술교육이 가지고 있는 창의력 육성에 중요성을 재인식하여 창작자에 의해 주도되었던 예술이라는 영역의 교육적 가치가 부각되어지기 시작했다. 이러한 흐름과 차원에서 볼 때 문화예술의 중요한 기폭제로서 무용예술의 역할과 기능은 매우 귀중한 위상을 점하고 있다. 또한 전문 예술가의 배출에 있어서 예능교육과 진정한 의미의 예술교육을 구분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즉, 예능교육이라 함은 기술을 배우는 단계로 창의력 있는 활동을 익히는 훈련이 아닌 신체 움직임의 기능을 배우는 교육을 말하며, 진정한 의미의 예술교육은 예능교육 수행과 더불어 예술가의 창의력을 배양시킬 수 있는 교육을 의미한다. 따라서 진정한 의미의 예술교육이라 함은 예술가의 교육뿐만 아니라, 예술을 통해 행할 수 있는 모든 영역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을 의미한다.

이 점에서 예술 전문가의 육성을 위한 예술교육의 새로운 개념 정의의 필요성이 대두된다. 즉, 예술전문가의 육성을 위한 예술교육이라 함은 창의력 있는 예술가의 배출과, 그 외에 예술을 통해 수행할 수 있는 교육, 경영, 치료, 사회복지 등과 같은 다양한 영역의 전문적인 교육을 수행하는 교육이라 새롭게 정의내릴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지속적인 전문가의 재교육은 문화예술분야에서도 새로운 지식과 제반되는 여러 가지 기술을 요청하고 있고, 현재 활동하고 있는 예술가들도 자신 스스로 재교육을 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에게 지속적인 교육을 제공함으로서 자연스럽게 새로운 직업으로의 창출 및 전환을 유도하며 보다 전문적인 능력을 배양할 수 있을 것이다.

www.kci.go.kr

이러한 점에서 무용예술의 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과 재교육 과정의 구축은 시급한 과제라 아니 할 수 없다.

그 외에도 다양한 변화의 양상을 가지고 있는 문화예술 환경은 바야흐로 창작 활동을 수행하는 전문 예술가뿐만 아니라, 예술을 통한 새로운 영역의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무용예술의 영역에서 이와 같은 변화 양상은 동일하게 적용되어진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이론적 연구를 토대로 차후 연구에서는 심도 깊은 재교육 프로그램의 구축을 제안하여 무용전문 인력의 사회적응력 배양 및 무용전문 인력의 직업 창출을 효율적으로 유도하는 데에 연구의 의의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김미운(2005).『문화교육 어떻게 접근 할 것인가?』. 청소년 문화포럼.
김지혁(2004).『국내 언론인 재교육 연구』. 서강대학교 언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구광모(2001).『문화예술정책과 예술진흥』. 중앙대학교 출판부.
김승환(1983).『평생교육 입문』. 정민사.
김세훈(2004).『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방안』.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김화숙(1986).『무용교육이란 무엇인가』. 서울: 한학문화사.
성기선(1999).『문화예술경영 전문인력 양성방안』. 한국교육개발원.
서명수(2004).『다양한 재교육과 평생교육프로그램 통해 스스로 훈련』. 문화예술.
서예원(2000). 예술교육으로서의 무용교육과정 연구.『청주대학교 논문집』, 37: 245-257.
신정희(1998). 한국의 전문무용교육의 현황과 발전 방향모색.『한국무용교육학회지』, 9: 15-36.
원광연(1999).『디지털 시대의 문화예술』. 문학과 지성사.
이승희(2002).『국어 대사전』. 민정서관.
용호성(2004).『문화예술교육정책의 현황과 전망』. 한국 공연 예술 매니지먼트 협회.
_____(2004).『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 방안』, 한국문화정책 연구원.

www.kci.go.kr

_____(2002). 『문화정책백서』, 문화관광부.
_____(2004). 『문화정책백서』, 문화관광부.
문화관광체육부 www.mcst.go.kr.
전문무용지원센터 www.dcdcenter.or.kr.
프랑스 국립현대무용센터 www.cndc.fr.

논문투고일 2013년 6월 15일
심 사 일 6월 27일
심사완료일 7월 5일

www.kci.go.kr

Abstract

A Study on the Re-education Program of Professional in Dance according to the Environment Change of Culture and Art

Kim lee kyung
Lecturer of Dance Department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Arts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build the theory and practice of the re-education program for training professionals in dance and to provide its direction and indicator. In doing this, four specific research questions were proposed as follows:

1) What is the theory and practice about re-education of artists and the environmental change in culture and art?
2) What can be the present situation and current problems of dance education in internal and external?
3) How can it be done for the building paradigm of re-education on dance professionals?
4) How would the re-education program model in dance art be set up?

In order to examine those of issues, it was accomplished critical consideration and analysis on the education process and the articles related to the art education and re-education concerning with dance. In detail, articles and books about art education and re-education, books and reports for policy program dance art education, and Master theses and Ph.D dissertations were reviewed critically as the first analysis. The current curriculums of department of dance in each national and abroad colleges were considered analysing the internet sites.

The following findings were articulated as the result of this study concerning research questions:

First of all, it was important to face the reality that the re-education for the artists can't meet the cultural level of the today's audience requiring high quality and variety performance due to the improvement of the intellectual culture level.

www.kci.go.kr

It was found that the re-education of artists must be attained with range for the creating jobs relating arts. Also emphasizing more improved and professional re-education and the development of its programs need to be carried out side by side.

In addition, the development of re-education program that can lead the creative revitalization need to be settled without delay. We formed a conclusion that the re-education for both the professional dance educators and the dance choreographers are needed. Under the current art environment, the usage of technology is increasing rapidly, so the re-education for the dance choreographer on technology may be needed for the smooth communication between the performance producers and audiences.

keywords: Re-education(재교육), Education(교육), Art education(예술교육), Culture environmental(문화환경), Professional in dance(무용전문인력)

www.kci.go.kr